



광양, 5년만에 연간 출생아 수 1000명 돌파

11월까지 1038명…전년동기 대비 192명 증가

임신출산 지원책·지역 산업구조 변화 등 영향

광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광양시 누적 출생아 수는 1038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46명)보다 192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20년 1024

명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다시 연간 출생아 1000명을 돌파한 것이다.

10월 누적 960명에서 11월 한 달 동안 78명이 태어나며 1000명 선을 예상보다 빠르게 넘어섰다.

이번 기록은 전국적인 초저출산 심화 상황 속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약 60%가 연간 출생아 수 10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 중소도시는 500~900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증가세가 2024~2025년 신설·확대된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2년 내 신설·확대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급,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지원(최대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일반 산모 80만원→1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조

건 완화(거주기간 1년→6개월) 등이 있다.

또 난임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교동비(시술 차수당 최대 20만원) 지원,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출산 1회당 최대 25회, 최대 100만원)을 확대하며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지역 산업구조와 정주환경 변화도 출생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양제철소 및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20~40대 전입 인구가 증가했고, 신규 아

파트 공급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근 도시 대비 낮은 주거비와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된 점도 출생 증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영숙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양시의 노력과 시민·지역사회의 믿음이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며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등을 통해 출산 친화 도시로서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담양군, 돌봄로봇 ‘다숨’ 업그레이드 담양군은 5일까지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가구 60곳을 대상으로 기존 돌봄로봇 ‘다숨(K)’을 업그레이드 모델 ‘다숨(K)’으로 교체해 제공한다. ‘다숨(K)’은 음성 기반 대화, 인지기능 콘텐츠, 약 복용·생활 리듬 알림 등 기존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 감지, 낙상 알림, 생활패턴 분석, 24시간 돌봄 모니터링 등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담양군

순천, 지역 소비 활성화·지역경제 활력 꾀한다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8~26일 접수

순천시가지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580억원의 국가 정원 등 관광수입(‘가든마니’) 증가, 지방소비세 증가 등 세입 확대 등을 통해 부채 없이 100% 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했다. 또 상반기에는 불필요한 행사와 형식적 사업을 정리하고, 무리한 공모사업 참

여를 최소화하는 등 선제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마련했다.

하반기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있지만 세입 증가세가 유지되며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기반이 갖춰졌다.

지원금은 지급기준일인 지난 11월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순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순천사랑상품권(지류, 1만원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은 오는 8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사용 가

능하다.

사용처는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카페·미용실 등 1만384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총 3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운영하고, 15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3일과 20일 토요일에도 지급창구를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마을회관·주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맞춤형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터널을 지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정기명 시장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통과 환영”

여수시, 사업재편·고부가 전환 각종 지원 근거 마련

정기명 여수시장(사진)은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다.

특히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으며,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산업위기가 지역 보통교부세 2년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사업재편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도 산업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장흥,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지구’ 최종 선정

천연물 자원·연구 기반의 활용도·사업화 가능성 인정

장흥군이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3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천연물)산업육성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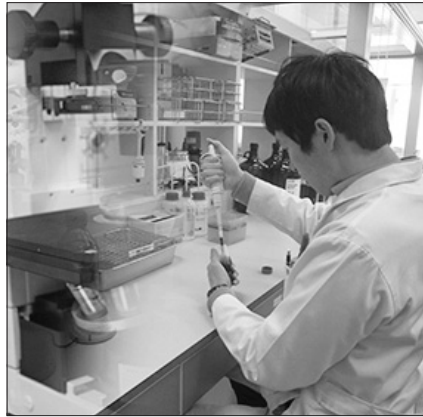
이번에 선정된 육성 지구는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로 장흥읍 삼산리의 장흥군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내에 위치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기존 천연물 자원과 연구 기반의 활용도, 사업화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육성 지구 지정으로 군은 △국비 기반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부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평가 가점 △지자체 소유 시설 및 부지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핵심 거점으로 선정된 장흥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기존 자산을 전라적으로 고도화하고 시제품 개발에서 실증, 사업화, 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산업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외부 시설에



의존하던 연구, 개발, 평가 절차를 장흥군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기반을 적극 활용해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육성 지구 지정은 장흥이 보유한 천연물 연구 역량과 인프라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며 “산·학·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대한민국 천연물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고흥, 청년 행정인턴 모집

행정·복지업무 등 70명

고흥군이 청년들에게 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70명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선발된 청년 행정인턴은 군청, 읍·면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 현장, 복지업무 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12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부터 26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선발 우선순위는 최초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순이며, 정원 미달 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신청자부터 일반 선발이 이뤄진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곡성,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대상’

복지대상 관리체계 운영 호평

곡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 평가 결과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행정 전반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 단위 평가다.

평가는 복지 분야 17개 영역에 대해 이뤄지며, 1차 기초자치단체 서류 심의, 2차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군은 이번 평가의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분야는 복지대상자의 적정 자격 유지와 급여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통합가구 인적 정비, 대상자 변동 알림에 따른 적기 처리, 소명자 사후관리 등



곡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 평가 결과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사회보장급여 13개 분야에서 변동 사항 관리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복지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실적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특히 사후관리 분야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대상까지 거머쥐며 3년 연속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사후관리에 힘써 사회보장급여를 적정 지급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복지 예산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i@gwangnam.co.kr